

국제뇌교육협회 뉴스레터

2011년 4월 30일 Vol.6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공식회원사



국제뇌교육협회 글로벌 뉴스 IBREA News

[Focus] 엘살바도르, 뇌교육 도입 최종승인

중남미 고대문명의 중심지역할을 해 온 국가이자 오랜 기간 내전에 시달려온
엘살바도르공화국이 국제뇌교육협회와 공식협력관계를 맺고,
자국에 뇌교육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뇌교육 도입, 엘살바도르는 어떤 나라인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고대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국가로, 스페인어로 '구세주(The Savior)' 라는 뜻의 이름을 가

진 나라로 국토의 90%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의 나라'입니다.

농민-지주간 토지분쟁이 도화선이 되어 1980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된 내전으로 이 기간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이 7만4천명에 달해 아직까지 수도인 산살바도르 시민들은 오랜 내전이 남긴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약물 의존도가 높고, 학습장애, 심리적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높은 상태입니다.

엘살바도르, 뇌교육을 어떻게 도입했나?



지난 1월 7일 '뉴욕시 뇌교육의 날' 2주년을 기념하여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신건강(Mental Health)' 주제의 뇌교육세미나에 21개국 유엔대표부에서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는데, 당시 엘살바도르 유엔대표부에서도 유엔대사가 직접 참석을 하였고 행사 직후 본국에 뇌교육 도입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뇌교육 세미나에서 발표된 미국 내 중학생 학습장애자의 뇌교육 성공사례가 엘살바도르의 학생들의 교육, 정신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하게 비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유엔대사가 직접 본국 공립학교 몇 군데를 컨택하였고, 산살바도르 수도 근처의 공립학교에서 뇌교육 도입의사를 밝히는 등 발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엘살바도르 외무부 차관이 유엔을 방문하여, 국제뇌교육협회 담당자와 미팅을 하여 뇌교육 도입을 공식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뇌교육 보급진행은 어떻게 되나?

엘살바도르 뇌교육 프로젝트는 현재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교사를 미주뇌교육협회에서 선발 중이며, 한 공립학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강사들이 머물 숙박, 차량,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뇌교육의 가치와 효과사례가 유엔을 통해 알려지면서, 엘살바도르 이외에도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서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한 두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뇌교육 보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캠페인단체인 글로벌기빙에서 인내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캠페인 사이트인 글로벌기빙에서 국제뇌교육협회를 프로젝트 파트너로 승인하며 엘살바도르 뇌교육도입건을 공식후원모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글로벌기빙 공식사이트에 엘살바도르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어, 전 세계인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국제적인 신뢰성을 한층 갖추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인트레이닝센터]

집중력 개발관리! 비알집중력클리닉의원 개원



‘집중력’에 대한 검진과 체크, 체계적인 두뇌훈련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비알집중력클리닉의원(원장 전영철)이 개원했다.

비알집중력클리닉(www.brainhsp.com)은 아동,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연령대의 학습 장애와 스트레스질환, 척추 통증을 개선하는 전문 클리닉으로, 뉴로피드백과 학습뇌파 검사 및 심리, 인지기능 검사 등 최신 뇌과학 기술을 이용한 처방 뿐 아니라 비알한의원과 함께 양·한방 협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날 개원식에는 전세일 브레인트레이너협회장,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서상기 국회의원, 권원기 한문화학원 이사장 등 20여명의 저명인사들과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세일 브레인트레이너협회 회장(CHA의과학대학 통합의

학대학원장)은 축사를 통해 “흔히들 ‘정신차려야 산다’ 라고 들 하는데, ‘차리다’의 의미가 제자리에 놓는다”라는 뜻이다”며, “정신을 차리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집중력이며, 집중할 때 인간의 자연치유력을 포함한 모든 힘이 극대화되고 능률이 높아진다”며 비알집중력클리닉의 개원의 의미를 축하했다.

유엔공보국 NGO기관인 국제뇌교육협회 회장이기도 한 이승헌 총장은 “비알집중력클리닉 의원은 단순히 집중력장애를 검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뇌를 어떻게 잘 쓰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21세기 융합과 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곳에서 새로운 두뇌건강관리의 모델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알집중력클리닉의원이 자리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 건물은 한국뇌과학연구원, 브레인트레이닝센터, 비알한의원, 브레인트레이너협회, 국제뇌교육협회 등 뇌전문기관들이 함께 자리하며 두뇌활용을 위한 뇌전문융합센터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뇌과학연구원 - 브레인월드닷컴]

명사지식기부 릴레이 강좌, 스마트브레인코리아



한국을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의 무료강좌를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명사초청 지식기부강좌인 ‘스마트브레인코리아’가 직장인과 일반 시민들의 배움과 자기계발의 갈증을 해소하는 새로

국제뇌교육협회 인증기관 주요소식

운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평소 보기 힘든 명사들을 만날 수 있어 직장인에서부터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연속해서 참여하는 비중도 높은 편이다.

‘스마트브레인코리아’는 두뇌포털 브레인월드닷컴과 한국 뇌과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명사초청 지식기부 강좌시리즈.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저자 등 21세기 대표키워드인 ‘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마당으로 올해 1월 한국 벤처를 이끈 이민화 KAIST 교수의 지식기부를 시작으로 2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에 이어 3회째에는 대표적인 미래학자이자 소설전문가인 정지훈 교수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스마트브레인코리아는 100% 무료강좌로 진행되며, 공동주최기관인 두뇌포털 브레인월드(www.brainworld.com) 회원에 등록하면 지속적으로 강좌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소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 컨벤션홀에서 매번 진행되어 장소변경으로 오는 혼란을 줄였다.

[한국뇌과학연구원]

뇌파 측정 등 인지과학 기반 영재성검사 호평



한국뇌과학연구원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재성진단평가검사(모델명 KIBS-Gini)가 차별성 있는 검사방식과 잠재된 영재성에 대한 종합적인 두뇌평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영재성검사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측정방식이다. 특정 분야의 지식평가를 위한 문제풀이 및 설문조사방식이 아닌,

■ 검사 진행방식

한국뇌과학연구원 검진센터 방문검사 (1주 후 결과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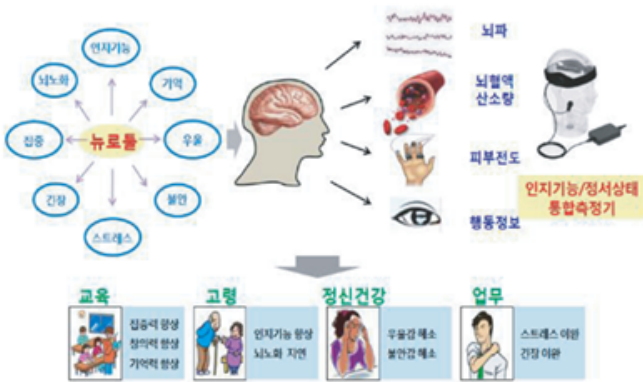
신체 생리신호 및 뇌파측정, 인지기능 수행평가, 전문가 관찰 등 실제 두뇌상태 신호측정과 전문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설문식 평가를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영재의 판별 대신 4가지 평가영역인 신체기능조절력, 정서기능조절력, 인지기능, 두뇌수행력으로 나누어 각각 5레벨의 잠재된 영재성을 평가한다. 기존에 배제된 신체 및 정서 조절 능력을 포함하고, 인지기능 및 두뇌활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학습에 연관된 두뇌영역이 독립적이라기 보다 정서와 신체조절 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뇌과학적 연구를 근거으로 두고 있다.

측정방식의 다양성과 전문연구기관 방문검사로 인해 홈페이지(www.kibsgini.org)를 통한 예약접수로만 가능하다. KIBS-Gini 검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연구원 검진센터를 방문해 2시간 검사 실시, 결과분석 후 30분 전문상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의] 02-556-2059 www.kibsgini.org

뉴로툴 개발, 미래선도산업 6대과제 선정



‘뇌-신경 IT융합 뉴로툴’ 분야가 한국의 미래를 먹여살릴 6대 미래 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6대과제에 포함된 ‘뇌-신경 IT융합 뉴로툴’ 분야는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국의 우수한 IT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차세대 최고 유망분야로 떠오르는 건강관리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선진국이 앞서가고 있는 뇌질환 기반의 뇌과학 기반연구 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인지기능 향상 등 정신건강 산업과의 연계된 분야를 선점한다는 것이다.

뇌-신경 IT융합 뉴로툴(Neuro-Tool) 과제는 뇌 활동의 과학적 해석과 검증을 통한 휴먼 스테디(Human Study) 기반의 새로운 뉴로툴 개발하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IT 인프라와 연결해 다양한 형태의 측정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긴장·불안·우울·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뇌파기계, 치매예방 뉴로툴, 학습집중력 향상툴 등을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병원에 전송해 원격 치료까지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황창규 단장은 소개했다.

IT, 바이오기술(BI), 인지기술(CI)을 결합한 두뇌 융합IT 산업은 2025년 매출 9조원, 수출 30억달러, 고용 1만8000명, 설비투자 9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취득자 보수교육 실시



두뇌훈련분야 최초의 국가공인자격증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이 열렸다.

4월 24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에서 열린 브레인트레이너 보수교육에는 100여명의 자격취득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세일 브레인트레이너협회장(CHA의 과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장), 김기성 (주)락싸 책임연구원, 이을순 BT자격검정센터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전세일 브레인트레이너협회장은 동서의학을 넘나들며 ‘뇌와 인간’을 주제로 깊은 통찰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주)락싸 김기성 책임연구원은 ‘뇌파를 활용한 두뇌특성 촬영법’을, 이을순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장은 ‘브레인트레이너’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은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두뇌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두뇌훈련전문가로, 유아 두뇌개발, 청소년 학습능력향상, 성인 스트레스관리, 인지기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세기 두뇌산업과 뇌융합트렌드에 맞추어 대표적인 유망자격증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공인 시험 1년 5개월만에 4천2백 여 명이 응시하여, 현재 700여 명이 브레인트레이너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01. Brain Education goes to El Salvador!



Just a few kilometers from El Salvador's capital, in the district of Tonacatepeque, children and youngsters are not only trying to be recruited by gangs (which make up more than 50% of the local population) but also face constant exposure to drug abuse and many other circumstances that threaten to hamper their health and life motivation.

Brain Education offer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se children to stay away from violence and conflict, recover a sense of hope and create a healthy and productive life for themselves and their community.

Through a 3-month pilot program, IBREA will provide Brain Education to 42 teachers and 100 students in Tonacatepeque's main school (Centro Escolar Distrito Italia) with the aim to help this community to overcome trauma and create a foundation for their enhanced learning and growth.

02. Brain World magazine goes digital



Brain World magazine is now accessible online through Zinio, one of the biggest media applications on the web.

Please encourage your friends and family members sitting in any part of the world to sign up to our digital quarterly publication at:<http://www.zinio.com/browse/publications/index.jsp?productId=500617674>

Brain World's latest issue features renowned leader, Georg Kell (Director of the UN Global Compact). Kell stresses the potential of a strengthened partnership between the UN and the business sector. Companies that resp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do better than those who don't. A mentality of material success and profit making is compatible with the UN humanitarian and sustainability goals. In fact, there is a point where both naturally meet. That is the Global Compact's basic assumption. Read more in Brain World!

03. IBREA fundraised over \$10,000 for Japan relief efforts



When nature unleashes all its power, even the mightiest nations become vulnerable. A wave more than 3-stories high has reminded us of how fragile our sophisticated modern world really is. At that moment, we put aside our nationalities, our gender, our race, our desire for a new job or a fancy meal, to come together for a cause. It becomes urgent and a priority to help our fellow human beings and the earth.

Inspired by the Earth Citizen awareness, IBREA US members and other collaborators have together contributed more than \$10,000 to IBREA Japan for their cooperation with the Red Cross Japan to help recovery efforts in all the areas affected by the earthquake.

04. IBREA participates at the UN CSW



On March 3 2011, the NGO Committee on Mental Health, having consultative status at the UN, celebrated a side-event on the occasion of the 55th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The CSW is a functional commission of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dedicated exclusively to gender equality and advancement of women. Every year, representatives of Member States, UN entities and NGOs accredited to ECOSOC gather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to evaluate progress on gender equality, set global standards and develop policies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women around the world.

Five women from different disciplines and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a representative from IBREA, served as panelists on the Mental Health Committee's side event. Together they explored some of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discrimination against girls and women (such as depression, anxiety, lowered self-esteem and long-lasting effect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recommended action designed to enable girls and women to lead fulfilling lives and ensure their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s a human right.

21세기 미래자산 '뇌' 정보서비스 및 뇌교육 컨설팅 제공

유엔공보국(UN DPI) NGO 등록기관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공식회원사인 국제뇌교육협회는 한국(서울, 미국(뉴욕)에 국제본부를 두고 해외 100개국 지부를 통해 뇌교육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뇌올림피아드 IHSPO 국제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두뇌포털사이트 '브레인월드(www.brainworld.com)' 지원, 두뇌인증제도 운영, 뇌잡지 발간 (한국판/영문판) 등 21세기 미래자산인 '뇌' 활용에 있어 국제적인 뇌컨설팅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뇌교육 보급 & 컨설팅 Supply & Consulting

IT, BT, NT, CT 등 21세기 기술융합과 통섭의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뇌'이며, 국제뇌교육협회는 뇌 분야 과학연구 및 학술, 연령별, 계층별 프로그램과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토대로 뇌활용 분야의 뇌정보센터와 컨설팅 기관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뇌인증 Certification

국제뇌교육협회는 인증원 설립을 통해, 건강, 교육, 엔터테인먼트, 음식, 라이프스타일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올바른 뇌활용을 통한 뇌문화 정립을 위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및 후원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Support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뇌교육협회는 매년 유엔본부에서 국제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 국제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2008년 6월 유엔본부에서 100개국 협회창립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뇌 분야 국제비영리기구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

한국본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3-5 캐럴라인타워 8층
Tel: 02) 3452-9046 Fax: 02) 3452-5894
E-mail: pmir@ibrea.org URL: kr.ibrea.org

뉴욕본부

866 UN Plaza, Suite 479, New York, NY 10017
URL: www.ibrea.org